

고등학교 6월민주항쟁 30주년 계기수업 기획(안)



작년에 6월민주항쟁 30주년 계기수업안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지게 된 데는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였던 사건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불의한 권력에 대항한 ‘촛불’이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속에서 6월민주항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새삼스럽게 스스로를 복돋았고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했던 것이다.

수업안을 준비하는 토론 과정에서 공유했던 수업 목표는 6월민주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하는 것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증가 등 사회적 불평 등의 문제는 결국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촛불’이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고민하는 것은 결국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를 잘 살피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사회적으로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 수업안을 구상할 때는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을 중시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과는 달리 좀 더 딱딱한 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지도안을 정리하였다.

1차시는 6월민주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에 대한 교사의 강의식 수업을 기본으로, 2차시는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를 소재로 학생들이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상해보고자 하였다. 사실에 토대하는 경우가 많은 역사 수업의 특성상 전개과정과 성과와 한계(또는 현재적 과제)를 한 시간에 모두 담아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둘을 따로 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파악해내는 데는 어떤 형태로든 학생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차시 학습지는 교사의 설명을 뼈대로 하는 내용 요약(흐름따라잡기)과 읽기자료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도록 한 탐구활동(좀 더 생각하기)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6월민주항쟁의 배경에 해당하는 전두환 정부의 통치방식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실들을 단순화하려고 하였다. 국보위나 삼청교육대에 관한 사실을 제외하고 1983년 유화조치를 간략하게 다룬 것은 이래서이다. 내용요약과 탐구활동은 내용상으로 매우 비슷하게 구성하여 교사가 강의한 내용을 학생들이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학생용 읽기자료도 분량을 조절하고 대중 역사서를 한번 더 가공하는 쪽을 선택하였고, 질문은 주로 자료를 읽고 근거를 찾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6월민주항쟁이 시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한 사건인 만큼 그 역동성, 또는 시민의 참여에 대해서 느껴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6월민주항쟁의 승리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또는 정답이 잘 찾아지지 않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2차시 학습지는 1차시를 토대로 학생들이 6월민주항쟁을 소재로 토론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까지 생각해보도록 이끌어보자는 의도를 담았다. 문제제기는 만화 『100℃』의 에필로그로 시작하였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를 ‘백지’, 즉 시민이 사회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표현한 내용이 2차시의 의도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6월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진행된 민주적 발전과 한계를 제시하고, 이를 현재 우리 사회의 위기와 연결시켜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6월민주항쟁 이후 30년의 변화를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연결시키려다보니 다루는 범위가 방대하고 어려워졌다. 결국 토론의 주제와 토론 그룹을 6월민주항쟁과 현재로 나누고,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연결시켜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읽기자료나 토론의 주제에서 전체적 전망이나 상세한 계획은 부족함으로 남아 있다.

이상이 현재 구상된 수업안의 구성의도이다. 준비과정의 토론에서 나왔듯이 현실적으로 진도에 쫓겼을 때는 1차시만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 조금 갖추어져있다면(또는 전개과정이나 시민들이 맞서 싸웠던 유신 이후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약간 세밀한 파악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차시의 문제제기로 전개과정을 대신하고 학생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6월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 접근해보는 2차시 수업 1시간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구성하면서 왜 6월민주항쟁에 대한 수업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촛불’로 고양된 개혁의지에 자극을 받으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6월민주항쟁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사)과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교과	한국사	차시	2/2	대상	고1	지도 교사		
단원	6월민주항쟁 계기수업							
성취기준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현재적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본다.							
교수·학습자료	학습지(읽기 자료 포함), PPT							
단계	주요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학습 활동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제시	<p> PPT를 제시하며 진행 </p> <p>교 지난 시간에는 6월민주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 보았어요. 다음 글을 볼까요?</p> <p>교 밑줄 친 (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죠?</p> <p>학 대통령 직선제입니다.</p> <p>교 맞아요. 그런데 왜 『100℃』의 작가 최규석은 이런 성과를 (나)처럼 비유했을까요?</p> <p>학 민주주의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 아닐까요?</p> <p>학 권력자를 국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p> <p>학 국민이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때는 권력자 몇 명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우리 모두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p> <p>교 예,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6월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토론을 통해 알아보시다. 첫째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 바꿔말하면 지금의 어른들이 백지에다가 어떤 모습을 그려왔는지 토론해보자는 것이고, 둘째,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싶은지, 즉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p> <p>6월민주항쟁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제도가 뿌리내리는데 한 매듭을 지었던 사건인 만큼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를 생각해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7분	<p>- 사전에 모둠별로 자리 배치(5명씩 6모둠)</p> <p>- 학습지 (읽기자료 포함)</p> <p>- PPT: 『100℃』 에필로그</p>	

전개	토론 준비	<p>교 자료를 10분간 읽고, 이후 15분간은 모둠별 토론을 하여 주어진 전지에 모둠의 의견을 적어봅시다. 그 뒤 2~3분간씩 모둠의 의견을 차례로 전체에게 발표한 뒤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자료를 읽어 봅시다.</p> <p>학 읽기자료 읽기 - 교사나 모둠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며 내용을 파악한다.</p>	10분	<p>- 정숙하게 읽도록 지도</p> <p>- 읽기 과정에서 교사와 모둠 구성원 내부의 도움 가능</p>
	토론 전개	<p>교 그러면 이제부터 주어진 질문을 놓고 토론을 전개해 봅시다. 1·2·3모둠은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4·5·6 모둠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그리고 모아진 의견들은 주어진 종이에 적어 봅시다.</p> <p>학 주어진 과제를 토론하고 전지에 의견을 적는다.</p>	15분	<p>- 전지와 매직 배부</p> <p>- 모둠별 토론 지도</p>
	토론 결과 발표 및 수업 정리	<p>교 먼저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 결과를 볼까요?</p> <p>학 1·2·3모둠은 칠판에 전지 붙이기</p> <p>교 발표를 희망하는 모둠이 3분 내외로 발표 - 5분간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진행은 교사)</p> <p>학 발표 모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 민주주의, 선거, 지역주의 등 • 경제 - 노동자와 노동운동, 재벌, 비정규직 • 사회 - 언론, 대중문화 <p>학 질문: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지금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등등</p> <p>교 토론을 정리한다.</p> <p>교 그럼 두 번째 주제 현재 한국 사회의 과제에 대해 토론한 모둠의 발표를 들어봅시다.</p> <p>학 4·5·6모둠은 칠판에 전지붙이기</p> <p>< 앞 주제와 동일하게 진행 ></p> <p>교 토론을 정리한다.</p> <p>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 현재의 과제에 대해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주어진 백지란 것에 동의하나요? 그러면 우리는 백지에 우리 모두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학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아요.</p> <p>학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려면요.</p> <p>학 정치인이 시민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p> <p>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신이 참여한 모둠의 토론내용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점을 반 페이지 내외로 적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도록 합시다. 우리 각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p>	18분	자석 또는 테이프